



24일 오전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축구국가대표팀이 회복훈련으로 운동장을 돌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드보호, 스위스 울릴 묘책 찾는다

동유럽 강호 보스니아와 내일 평가전  
세네갈전 보완...포백 완성도 높일 듯

아드보카트호가 동유럽 다크호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맞아 독일월드컵 본선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3위 보스니아를 상대로 국내 2차 평가전을 치른다. 오는 27일 1차 베이징스포르인 스킵블랜드 글래스고를 향해 떠나기 직전 마지막 평가전이라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1(구 LG칼텍스가스) 초청으로 치러질 이번 친선평가전은 23일 토고의 '맞춤형 적수' 세네갈전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면을 드러낸 아드보카트호로서는 팀 전력을 실전 체제로 정비해야 할 흔치않은 기회다. 태극전사들은 24일 회복훈련을 통해 전날 격전에 지친 몸을 추슬렀다. 아직 실전에 선보이지 않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김남일(수원),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 이영표(토트넘) 등 중원과 포백(4-back)의 핵심 요원들도 차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평가전의 초점은 체제가 좋고 파워가 뛰어난 스위스를 가상해 강한 유럽팀을 상대로 실전 적응력을 키우는 데 맞춰져

있다. 16강 전선에서 조 2위를 다툰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는 평균 신장이 183.2cm로 G조 세 팀 중 가장 높고 평균 나이가 25.1세로 가장 젊다. 24일 입국한 보스니아 대표팀은 21명의 멤버 가운데 무려 17명이 180cm가 넘는 장신 군단이다. 수비 라인은 대부분 185cm가 넘고 안정감의 동료인 이바카 그릴리치(뤼스부르크·187cm),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세르게이 바르바레즈(함부르크·188cm) 등도 고공전에 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은 스위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토고전을 가상한 세네갈처럼 완벽한 맞춤형 상대는 아닐 수도 있다. 세네갈전에서 드러난 아드보카트호의 선결 과제는 중원의 힘을 회복하고 포백 라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박지성, 김남일, 이을용으로 미드필더 3인 방을 전원 교체하거나 김두현(성남), 이을용, 이호(울산)를 먼저 넣고 박지성, 김남일을 교체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포백과 중원이 안정을 되찾으면 공격수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찬스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4일 오전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훈련에 참가한 박지성과 김남일이 몸싸움 연습을 흉내내며 장난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 ■ 아드보호 최상의 미드필더 조합은?

## 공격형 박지성 전방에 김남일·이을용 뒷단속

아드보카트호의 허리를 굳건히 지켜줄 최상의 미드필더 조합은 과연 어떤 것일까. 23일 토고 '맞춤상대'로 치른 세네갈전에서 디 아드보카트 축구대표팀 감독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주전 미드필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김남일(수원),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을 벤치warm으로 남겨 놨다. 대신 '젊은파' 백지훈(서울)과 이호(울산)에게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기고 김두현(성남)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워 공격 조율을 맡겼다. 하지만 초반 세네갈의 강한 중원압박에 밀려 패스와 공격 루트를 제대로 찾지 못한 전반전 동안 잦은 백패스와 패스범실을 연발하면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 결국 전진패스를 봉쇄당한 미드필더에게 불을 되돌려 받은 최종 수비수들은 전방의 공격수를 향해 정밀도가 떨어지는 긴 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하지만 세네갈전에 나선 중원 라인인은 아

드보카트 감독이 구상하는 최적의 조합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 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 코치는 "그동안 아드보카트 감독의 훈련을 지켜볼 때 박지성을 중심으로 이을용과 김남일의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 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박지성은 워낙 활동량이 커 상대 수비수를 교란시키는 데 탁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전술변화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최 코치의 설명이다. 또 이을용은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과 볼 소유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정확한 원발 크로스 능력이 돋보인다. 최 코치는 또 "김남일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경기지연 능력이 훌륭해 자타가 공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손꼽았다. 결국 박지성-이을용-김남일 조합이 아드보카트 감독이 독일월드컵 본선에서 사용할 최상의 조합이라는 게 최 코치의 예상이다.

### ■ 월드컵 단신

#### 외신 "한국 힘든 경기였다"

전날 치른 세네갈과 평가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외신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AFP통신은 23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아드보카트 감독과 그의 코칭스태프들은

토고 전 승리가 독일월드컵축구 2라운드(16강)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화요일 경기로 미루어볼 때 결과와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 통신은 또 '세네갈이 전반 초반에도 다소 주저하는 듯한 한국보다 경기를 주도했다'고 덧붙이며 압둘라에 사르 세네갈 감독의 "그들은 어떨 때는 매우 강한 팀이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매우 약한 팀으로 변하곤 했다"는 한국에 대한 날카로운

### ■ 슬라코비치 보스니아 감독

## "스위스전 대비 큰 도움 될 것"

"우리 팀과 평가전은 한국이 독일월드컵 본선에서 스위스와 대결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기러 이 곳에 왔다" 26일 오후 8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드보카트호와 마지막 국내 평가전을 치르기 위해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축구대표팀 블라츠 슬라코비치(47·사진) 감독은 "이번 평가전이 독일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슬라코비치 감독은 입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보스니아와 스위스는 축구 스타일이 다르지만 스위스전을 대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축구대표팀에 대해 "조직력이 매우 뛰어난 팀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월드컵 전방에 대해 슬라코비치 감독은 "매우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한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 독일월드컵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디 아드보카트 감독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슬라코비치 감독은 "아주 뛰어난 지도



자"라고 칭찬했고 '아는 한국 선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잘 알고 있다. 활동적인 데다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과 평가전에 대한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평가전을 통해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 ■ 보스니아 어떤 팀

## 분데스리가서 4명 활약...FIFA 랭킹 63위

아드보카트호의 마지막 국내 평가전 상대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63위로 한국(29위)보다 처지지만 만만찮은 전력을 갖춘 팀이다. 블라츠 슬라코비치 감독이 이끄는 보스니아는 독일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4승4무2패로 세르비아-몬테네그로(6승4무), 스페인(5승5무)에 이어 7조 3위를 차지, 본선행에 실패했다. 하지만 조 1위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는 1무1패(0-0, 0-1), 2위 스페인과는 두 차례 모두 1-1로 비겼을 만큼 강호들과도 결코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다. 독일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 D조에 속한 이란(5월21일·이란 마슈하드), 스페인 및 우크라이나와 H조에 속한 사우디아라비아(6월7일·독일 뮌헨)가 각각 유럽팀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평가전 상대로 보스

니아를 선택할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과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다. 이번 방한 멤버 21명에는 월드컵 예선 산 마리노전 헤트트릭 포합, 팀이 거둔 12득점(9실점) 중 5골을 혼자 쏟아낸 엘비르 보리치와 두 골을 넣은 하산 살리하미드지치가 빠졌다. 하지만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 참가했던 즐라탄 바이라모비치(살체04)를 비롯한 안정감의 동료인 이바카 그릴리치(뤼스부르크), 세르게이 바르바레즈(함부르크 SV), 조브제잔단 미시모비치(보름) 등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4명이 포함됐다. 공격수 미시모비치와 35세의 베테랑 미드필더 바르바레즈는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각각 두 골씩을 터트린 보스니아 공격의 핵심 멤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적도 곁들였다.

로이터통신 역시 '세네갈의 경우 임글랜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 3명이 이날 친선경기 전에 뛰지 않았는데도 한국은 상대를 제압하는데 힘겨워했다'고 지적했다.

### 송중국 큰 부상은 아닌 듯

23일 세네갈과 평가전에서 허벅지 근육 이상으로 교체됐던 송중국(수원 삼성)이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재 대표팀 미디어담당관은 2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진행된 대표팀 회복 훈련 중 "오늘 아침 식사 후의 무진에 송중국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큰 이상은 없었다. 세네갈전을 치르다 오른쪽 허벅지 근육 근육이 약간 늘어났다"면서 "감독이 판단할 문제지만 26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전엔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오늘과 내일은 치료와 재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